

사순절 세번째 / 새가족 환영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3<sup>RD</sup> SUNDAY IN LENT

주후 2022년 3월 2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통일 40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6 번 사순절 (3)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이성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Luke) 13:18-21	이윤선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보혈”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384 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통일 434)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하며,

십자가는 한두 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더 이상은 말로 끝나는 관념적인 회개나,

생각에만 그치는 미숙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참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삶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7:2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개역개정 눅13:18)

“Then Jesus asked, "What is the kingdom of God like? What shall I compare it to?" (NIV Luke13: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3/20 (주일)	3/21 (월)	3/22 (화)	3/23 (수)	3/24 (목)	3/25 (금)	3/26 (토)
	출31	출32	출33	출34	출35	출36	출37
본문	요10	요11	요12	요13	요14	요15	요16
	잠7	잠8	잠9	잠10	잠11	잠12	잠13
	갈6	엡1	엡2	엡3	엡4	엡5	엡6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3/23 오후7:30)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사16:1-22)
토요 새벽기도회 (3/26 오전6:30)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시74:1-23)

지난 주일(3/13) 말씀

하나님 나라 살아내기(8)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마 13:24-30,36-43)

유대인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고난의 시기가 힘든 것은 무엇인가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있는 복잡한 현실을 말씀하신 부분과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힘 없고 무고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1)첫째,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취한 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골라서,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기 때문입니다(마13:25). 2)둘째, 우리는 혼돈과 고난의 시기일수록, 차근차근 우리 신앙의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을, 지금 (미리) 앞당겨서 실현하고 실현해 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마13:29-30). 최근 팬데믹을 지나면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이 폭풍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은 (분명)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도, 세상 만물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또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